

2020년 6월 2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팀장 이재록(044-201-1541), 사무관 최화숙(1545) / 제공일 : 6월 26일 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담양 대나무밭 농업,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

- 유엔식량농업기구,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결정(6.26) -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「담양 대나무밭 농업」이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고 밝혔다.
- FAO 세계중요농업유산(GIAHS) 과학자문그룹(SAG) 최종심의에서는
 - 354개 자연마을 뒤편에 조성된 대나무밭에서 생산된 죽순과 대나무를 활용한 죽세공품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기여
 - 대나무밭~주거지~농경지~하천으로 이어지는 자연친화적 토지이용
 - 쌀겨, 부엽토 등을 활용한 전통비배와 간벌, 대나무 공예 등 전통농업기술
 - 아름다운 농업문화경관, 대나무가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죽신제 등 문화·사회적 가치 등이 인정되어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「담양 대나무밭 농업」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.

-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는 2002년부터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, 생물다양성과 전통 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(GIAHS)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, 현재 21개국의 57개소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,
 -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이 식량 및 생계수단, 생물다양성, 전통농업 지식과 독창적 기술, 문화·가치체계로서 전통농업문화와의 연계, 우수한 경관 등 지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.
 -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운영, 15개 지역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전·관리해오고 있으며, 2014년에 「청산도 구들장 논농업(제1호 국가중요농업유산)」, 「제주 밭담(제2호 국가중요농업유산)」, 2017년에 「하동 전통 차농업(제6호 국가중요농업유산)」, 2018년에 「금산 전통 인삼농업(제5호 국가중요농업유산)」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.
-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4호로 지정된 담양 대나무밭 농업은 2018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였다.
 - 농식품부와 담양군, 한국농어촌유산학회, 한국농어촌공사는 세계에서 최초로 대나무를 대상으로 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동아시아 농업유산협의회(ERAHS) 국제포럼 개최, 국내외 농업유산 세미나 참석 및 발표 등을 통해 해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,

- 지난 2년간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까다로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그룹(SAG)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「담양 대나무밭 농업」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.
-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김인중 국장은 “대나무 품목으로는 「담양 대나무밭 농업」이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것으로, 이는 대나무의 농업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담양 대나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.”라면서,
- “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은 보전·활용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농업유산의 가치를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”라고 덧붙였다.

참고1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(GIAHS)

* GIAHS :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

□ 목적

- 전 세계의 독창적인 농업 문화, 인류 진화 시스템 및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통합접근 방식의 농촌 개발을 유도(2002년~)

□ 주관기관 :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(FAO)

□ 등재 절차

- ①국가추천으로 후보지 신청(FAO본부) → ②서류심사 및 현지답사(GIAHS SAG) → ③결정(GIAHS SAG) → ④지정서(FAO GIAHS)

* 과학자문그룹(SAG) 위원(7명): Mauro Agnoletti(Italy), Patricia Goulart Bustamante(Brazil), Anne MacDonald(Canada), Qingwen Min(China), Helida Oyieke(Kenya), Kazuhiko Takeuchi(Japan), Slim Zekri(Tunisia)

□ 등재요건

- ①식량·생계수단의 확보, ②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, ③지식 시스템 및 적응기술, ④문화,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, 농업문화, ⑤ 현저한 경관, 토지와 수자원관리 기능

□ 등재 현황('20)

| 구분 | 국가 | 세부 내용 |
|----|------|--|
| 등재 | 21개국 | 58개소(중국 15, 일본 11, 대한민국 5 , 인도 3, 이란 3, 스페인 3, 이탈리아 2, 모로코 2, 탄자니아 2, 알제리·방글라데시·칠레·이집트·켄야·멕시코·페루·필리핀·포르투갈·스리랑카·튀니지·아랍에미레이트 각 1) |

※ 청산도 구들장 논, 제주 밭담('14년 4월), 하동 전통차농업('17년 12월), 금산 전통인삼농업('18년 7월), **담양 대나무밭 농업('20년 6월)**

참고2

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*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

| 지정번호 | 명칭 | 지정범위 | 주요 특징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* 제1호('13) | 청산도 구들장 논 | 완도청산도 전역(5.0ha) | ○ 급경사로 돌이 많고 물빠짐이 심하여 논농업이 불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온돌방식을 도입, 독특한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와 논 조성 |
| * 제2호('13) | 제주 밭담 | 제주도 전역 (542ha, 22,108km) | ○ 돌, 바람이 많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 방지, 농업 생물다양성,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 |
| 제3호('14) | 구례 산수유농업 | 구례군 산동면 (228ha) | ○ 생계 유지를 위해 집과 농경지 주변 등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형성, 다양한 생물 서식지, 시비와 씨 제거 등 전통농법 |
| * 제4호('14) | 담양 대나무 밭 | 담양읍 삼다리 (56.2ha) | ○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며 대나무숲은 독특한 농업경관 형성, 죽초액과 대나무숯을 활용하여 병충해 방제 및 토양개량 등 전통농법 |
| * 제5호('15) | 금산 인삼농업 | 금산군 일원 (297ha) | ○ 인삼재배의 최적지, 재배지 선정, 관리, 재배, 채굴, 가공 등 전통농법 유지, 주변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 |
| * 제6호('15) | 하동 전통 차농업 | 하동군 화개면 일대 (597.8ha) | ○ 생계유지를 위해 1,200년 동안 전승된 전통적인 농업, 풀비배 등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, 차밭 주변의 산림과 바위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 |
| 제7호('16) |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| 울진군 금강송면 북면 일대(14,188ha) | ○ 왕실에서 황장봉산으로 지정 관리,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송계와 산림계를 조직하여 관리, 주변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형성 |
| 제8호('17) |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|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대(58.9ha) | ○ 뽕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·관리되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, 생물다양성,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 |
| 제9호('17) | 울릉 화산섬 밭농업 | 울릉군 일대 (7,286ha) | ○ 급경사지 밭을 일구면서 떠돌이를 조성하여 토양유실 방지하고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였으며, 산림과 해안이 어우러지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 |
| 제10호('18) |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| 의성군 금성면 등 4개면 일원 | ○ 금성면 일대 약 1,500개의 제언을 축조, 각각의 제언은 서로 이어져, 농업용수를 저장·활용함으로써 이모작 전환시스템 구축 |
| 제11호('18) |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| 보성군 일원 | ○ 새끼줄을 기준삼아 경사지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식 차밭 조성 기술과 경관 형성 |
| 제12호('18) |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| 장흥군 일원 | ○ 반음반양의 차 재배환경 조성 및 친환경 농법, 발효차 전통 제다 지식체계, 굽는 과정이 추가되는 독특한 청태전 음다법 등 구축·전승 |
| 제13호('19) | 완주 생강 전통 농업시스템 | 완주군 일원 | ○ 겨울철 생강종자 보관을 위해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으로 농가의 아궁이 열을 이용한 온돌 방식, 수직강하 방식 등이 있음 |
| 제14호('19) | 고성 해안지역 뚝방 관개시스템 | 고성군 일원 | ○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뚝방을 조성하고 활용하여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극복 |
| 제15호('19) | 상주 전통꽃감 | 상주시 일원 | ○ '상주등시' 전통 품종보전을 통한 감 재배 적지선정·관리·가공 등 꽃감의 전통적 방식 계승 |